

하루를 시작하며



권 주 희
스튜디오126 대표·독립기획자

요즘 지인들 사이 화두는 AI 사용에 따른 부작용이다. 무슨 결정이든 ChatGPT에게 먼저 묻게 되는 상황들은 우스갯소리처럼 들리지만, 웃어 넘기기엔 불편한 무언가가 남는다.

필자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거나 공모의 심의를 담당할 때, 청년 세대의 에세이, 지원서를 자주 접하게 된다. 자신의 생각을 녹여내야만 하는 글들을 천천히 살펴보면, 수려한 어휘와 비슷한 문장 구조, 어딘가 모르게 전문가의 손이 닿은 듯하면서도 억지로 분량을 늘

AI가 잠식하는 사유의 영역

어뜨린 글들을 빈번하게 마주한다.

AI는 분명 유용하다. 복잡한 정보를 순식간에 정리해주고, 막막한 시작의 두려움을 덜어준다. 하지만 편리함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의존이 될 때 우리는 무언가를 잃기 시작한다. 문제는 이러한 변화가 '도움'의 수준을 넘어 '의존'으로 빠르게 기울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창작, 기획, 글쓰기, 심지어 의사결정에 이르기까지 AI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몇 가지 균열이 드러나고 있다.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사고력이다. 스스로 고민하고 판단을 내리는 과정은 단순한 정보 처리가 아니다. 자신의 경험과 가치관, 감정이 뒤섞이는 지극히 인간적인 행위다. AI가 대신 결론을 내려줄수록, 우리는 사유의 과정을 생략한다. 처음엔 편하지만, 서서히 스스로 생각

하는 근육이 약해진다. 학생들이 에세이를 AI로 작성하고, 직장인들이 기획안을 AI에게 맡기는 사이, 개인의 '관점'은 조용히 증발한다. AI는 정제된 문장과 구조를 즉각적으로 제공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용자는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답을 탐색하는 시간을 생략하게 된다. 이는 단순한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정의하고 맥락을 구성하는 능력 자체를 점차 외부화시키는 일이다. 결국 생각은 '생성'이 아니라 '선택'의 행위로 축소된다.

둘째, 창작의 균질화다.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평균값에 가까운 결과를 산출한다. 이는 일정 수준 이상의 완성도를 보장하지만 동시에 미묘한 차이, 낯선 감각, 실패에서 비롯되는 창작의 고유성을 희석한다. 특히 문화예술 영역에서는 치명적이다. 작품이 더 이상 작

가의 경험과 감각에서 출발하지 않고, 데이터의 통계적 결과에 수렴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셋째, 책임의 불분명성이다. AI가 생성한 결과물을 기반으로 판단하거나 결정을 내릴 때, 결과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사용자는 편리함을 취하지만 오류나 편향이 발생했을 때 이를 감당할 준비는 돼 있지 않다. 결국 책임은 흐려지고, 판단은 점점 더 외주화 된다.

AI는 분명 강력한 도구다. 그러나 도구가 사고를 대체하는 순간, 우리는 효율을 얻는 대신 사유의 주도권을 잃게 된다. 중요한 것은 사용 여부가 아니라 사용의 방식이다. 질문을 AI에게 맡기지 않고, 답을 검증하는 과정에 스스로 개입하는 것. 그 최소한의 긴장이 유지될 때, AI는 비로소 도구로 남을 수 있다.

사설

돈 없어 전국체전 출전 못하는 황당한 행정

제107회 전국체육대회가 오는 10월 제주에서 개최된다. 12년 만에 제주에서 다시 열리고 있다. 이번 대회는 70만 도민의 염원을 하나로 묶어내고 제주의 브랜드 가치를 대내외에 널리 알리는 호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국체전이 제주에서 개최되는 만큼 제주도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선수단을 출전시킬 계획이다. 하지만 선수단 지원 예산이 부족해 일부 선수들은 참가하지 못할 처지에 놓여 있다. 돈이 없어서 안방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에 출전하지 못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전국체전 선수단 지원 예산은 8억6500만원에 불과하다. 선수단 규모가 역대 최대 수준이어서 훈련비와 출전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추가로 3억원을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지방보조사업 운용평

가에서 저조한 성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비인기 종목 선수들을 중심으로 전국체전에 출전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제주도체육회도 일정 부분 인정하고 있다. 선수단 규모가 예상보다 늘어나 훈련비와 출전비가 부족한 상황이고, 현재 예산으로는 약 100명의 선수가 출전하지 못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제주도와 제주도체육회의 단일한 행정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행정의 잘못으로 예산 증액이 안 됐으면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도 손 놓고 뒹집만 지고 있다. 예산이 부족해 체전에 출전하지 못하는 선수가 있다는 사실을 타 시도 선수단이 안다면 얼마나 비웃음거리가 되겠는가. 당국은 도의회와 협의를 거쳐 부족한 예산을 확보해 피해보는 선수가 없게 해야 한다.

수소차 늘리겠다며 충전 불편은 어쩌나

제주도가 전국 최고 수준의 보조금을 앞세워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차량 한 대당 3950만원이라는 파격적인 보조금을 지원하는 민간보급 사업 신청을 처음으로 받았는데, 보급 물량인 79대의 두 배가 넘는 174대가 접수되며 흥행했다. 문제는 제주도가 그린수소 기반의 탄소중립과 친환경 모빌리티 전환 정책을 내세우면서도 정작 차량 운행에 반드시 필요한 충전 인프라는 미리 갖추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런 지적은 지난 13일 열린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이어졌다.

현재 도내 수소차 충전소는 함덕에 단 한 곳뿐이다. 제주도는 올해 말까지 제주시 도련동 변영로 초입에 이동형 충전소를 구축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서귀포시 강창학종합경기장에 충전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하지만 내년까지 충전소가 확충되더라도 제주시 한림·한경 등 서부지역 운전자들은 충전을 위해 함덕이나 서귀포시까지 1시간 안팎을 이동해야 한다. 과연 수소차 이용자들이 이를 '편리한 친환경차'로 느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제주에 수소차가 한 대도 없던 2019년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소 인프라 및 충전소 구축 방안'을 보면 정부는 2022년까지 전국 주요 도시에서 약 30분 내 수소 충전소에 도달할 수 있도록 충전소를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 기준만 보더라도 현재 제주의 수소차 충전 인프라는 열악한 수준임이 분명하다. 수소차의 보급 확대와 충전 인프라는 같은 속도로 갖춰져야 하는 게 기본이다. 그래야 수소차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전가하지 않고, 수소차의 대중화도 앞당길 수 있다.

열린마당

폭염보다 뜨거운 화재, 생활점검으로 막아야

유 병 혁
제주소방서 예방안전과(소방교)

도 제거해야 한다.

조리 중 자리를 비우거나 담배꽂이를 무심코 버리는 행동, 쓰레기 소각 등도 화재의 원인이 된다. 기계적 요인 예방을 위해서는 차량이나 기계 사용 전 이상 소음, 냄새, 과열 여부를 확인하고, 오래된 장비는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주거시설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비치하고, 자동차 안에는 라이터, 보조배터리, 스프레이, 휴대용 가스용기 등을 두지 말아야 한다. 창고는 전기배선 주변에 물건을 쌓지 말고 출입구와 소화기 주변 통로를 확보해야 한다.

화재 예방은 낡은 멀티탭을 교체하고 실외기 주변을 정리하며 작은 불씨를 끝까지 확인하는 습관에서 시작된다. 무더운 여름, 생활 속 작은 점검과 실천이 우리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4·3평화트레일 “역사 견고 평화 만나다”

오는 18일 알뜨르비행장서 “해의 유입 감염병 주의보”

○…제주도가 제주4·3과 일제강점기 역사 현장을 걸으며 평화의 가치를 되새기는 ‘4·3 평화트레일’을 오는 7월 18일 서귀포시 대정읍 알뜨르비행장과 첫알오름 일원에서 개최.

이번 행사는 역사 현장을 직접 걸으며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일상 속 실천을 통해 평화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참가자들은 전문 해설사와 함께 알뜨르비행장과 첫알오름의 제주4·3과 일제강점기 유적을 탐방.

행사는 오전 10시에 시작하며 참가 인원은 20명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17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신청서(구글폼 : <https://forms.gle/czZQWzgHM9jmgjzu8>)를 통해 신청.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 “해외여행 전 필요한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여행 중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해외유입 감염병 예방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추가 전파를 예방해 달라”고 강조.

부 고

김창보(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前 서울고등법원장) 아버지 김해김공재현(향년 94세)께서 서기 2026년 7월 14일 10시 7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 2026년 7월 16일(목요일)

▶발인일시 : 2026년 7월 17일(금요일) 오전 7시

▶발인장소 : 훈길장례식장 201분향실 (공향서로 131)

▶장 지 : 봉성리 가족선영

배우자 진원방
아 들 김창보 며느리 좌여정
창우 현연자
딸 김숙희 사 위 김순지
미성

손 자 김홍찬·홍규·홍석
손 녀 김연주
외손자 김대유
외손녀 김보미·유미·고지은·지원

※ 연락처 : 김창보 010-4233-3150

제주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콜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율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칼라강판 조립식 건물

녹슬고 비새는 곳에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 주 개 발

☎ 782-3644

010-4690-3636

토지 후손 찾기

토지 대장에서 주소 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을 찾아드립니다.

후손 찾기 한달 이내 가능합니다.

○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 토지 후손 찾아드립니다.

○ 등기는 되어 있으나 주소가 바뀌어 소유자를 못찾는 경우

○ 소유권 이전 분쟁시 승소 가능 자료를 찾아드립니다.

묘지전문 제주토박이

제주누리 미등기 토지 연구소
신소장 ☎ 010-7305-7819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가족묘지·문중묘지 허가 대행

별초대행·각종제초작업

묘지관리·묘지보수

방묘·산담·잔디작업

평장·이장·화장·무연고 전문

가족묘지 & 산소에 새, 석새, 잡풀 죽는 약 보유중

장례지도사 강 봉 호
010-5254-6661

「진주강씨 제주도종회 이사
사)한국역술인협회 제주지부 이사
관음사 영락원 관리이사」

하나 장 의 사
616-08-85402